초고령사회 일본, 노인 교통사고 '골머리'

면허반납 독려·인지검사 강화
80세 이상 26% 여전히 운전
고령 운전자 대형사고 잇따라

4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일으킨 사고 현장. 이 사고로 A씨와 그의 차량에 동승한 70대 여성이 숨졌고 7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고령자들이 내는 교통사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령자들을 상대로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재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오사카 등지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

3일 오사카(大阪)에서는 80세 고령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인도를 향해 급발진해 모녀 등 4명이 부상했고, 4일에는 후쿠오카(福岡)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7세 남성 C씨가 몸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무고한 모녀의 생명을 앗아가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고령자들이 내는 대형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율은 13.5%로 10년 전의 7.4%에서 크게 늘었다. 이런 비율은 2017년 12.9%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의 수는 2007년 283만명에서 2017년 540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했다.

면허 갱신 때나 신호 무시 등으로 인한 법 위반시 판단력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검사에서 '치매 우려'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치매로 진단받으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작년 한해 동안 5만4천786명의 고령자가 '치매 우려'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기능 등을 갖춘 '안전운전 지원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운전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신체적인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인들의 특성상 여전히 많은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다. 최근 내각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연령대의 26.4%가 외출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1일 관계 부처에 ▲자동 브레이크 등 새로운 안전 기술의 개발과 보급 ▲면허반납 고령자에 대한 이동수단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왕위 대신 사랑 택한 '세기의 로맨스' 말레이 前 국왕 부부, 아들 출산 공개

출산 2주일만에 SNS 공표

왕위 대신 사랑을 택해 '세기의 로맨스'로 주목받은 말레이시아 전임 국왕과 러시아 국적 여성 모델이 아들을 출산했다.

말레이시아 클란탄주의 술탄인 무하맛 5세와 지난해 결혼한 러시아 미스 모스크바 출신 모델 옥사나 보예보디나는 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지난달 21일 아기를 낳은 사실을 공표했다.

보예보디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기 발 사진을 올리고 "5월 21일은 내 인생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 날이다. 출산 후 여성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들었던 모든 말은 사실이었다"며 "이 사랑은 특별하다. 이 감정은 완전히 새롭다. 이제는 우리 세 명이 됐다"고 기쁨을 전했다.

무하맛 5세는 병가 중이었던 작년 11월 22일 모스크바 근교에서 보예보디나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무하맛 5세는 50세, 보예보디나는 26세로 24살 차이가 난다. 무하맛 5세는 올해 1월 6일 국왕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전격 퇴위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9개 주 최고 통치자들이 5년 임기의 국왕직인 '양 디-페르투안 아공'을 돌아가면서 맡는다. 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무하맛 5세가 처음이다.

무하맛 5세 부부는 결혼 두 달여 만에 이혼 결심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보예보디나의 임신 사실이 공개된 뒤 불화설이 잦아들었다. /연합뉴스

中 "5G 특허 中기업 비중 30%…세계 최고"

5세대 이동통신(5G)이 미중 '기술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전했다.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은 5일 "5G 표준은 세계 산업계가 공통으로 참여해 만들어가고 있다"며 5월을 기준으로 중국 기업의 5G 관련 특허 건수가 세계 5G 특허 건수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5G 분야 선도 기업인 화웨이(華爲)를 '블랙 리스트'에 올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최근 자국의 5G 기술 발전상을 부각하면서 미국이 이런 이유로 자국 기술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조만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이통사에 5G 영업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의 5G망 구축 사업의 핵심 사업자인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5G 구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톈안먼 진압 中장교 공개 참회…"모든 사람 6·4 잊지 말아야"

대만서 30주년 추모집회
"더 많은 군인 진상 밝혀주길"
시위 참여자 등 2천여명 참석

홍콩 시민들 '톈안먼 30주년' 추모집회 4일 밤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30주년 기념 추모집회에서 수천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톈안먼 사태) 3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집회가 대만에서 열린 가운데 톈안먼 사태 당시 중국군 장교가 참석해 공개 참회했다.

톈안먼 사태는 중국 정부가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들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자유광장에서 열린 톈안먼 사태 추모집회에서 당시 계엄 임무를 맡았던 중국 39집단군 116사단 소속 리샤오밍(李曉明) 전 중위가 단상에 올라 톈안먼 사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리샤오밍은 많은 사람들이 톈안먼 사태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며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후손, 모든 사람들이 6.4를 잊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더 많은 계엄부대의 군인들이 세상에 나와 진상을 밝혀주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만 사회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화인민주서원 등 민간단체가 전날 개최한 이번 추모집회에는 1989년 톈안먼 시위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과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 참가자들, 당시 대만에서 톈안먼 시위를 응원했던 문화예술계 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천젠런 부총통이 참석해 중국 정부의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의 추모 행사에 참석한 가장 고위급 현직 정부 인사다.

대만 SET TV는 라이 전 원장은 2020 대선 유력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다면서, "6.4 사건은 피비린내로 짓밟힌 애국 민주 운동"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日언론 독립성 우려…美기지반대운동 과도하게 규제"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서

유엔이 일본 언론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일본에는 현재도 언론의 독립성에 우려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7년에도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케이 보고관은 새로운 보고서에 지난 2017년의 보고서에서 권고했던 부분을 일본 정부가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넣었다.

지난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언론의 자유 수준은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 32위였다가 올해 4월에는 67위로 하락했다.

한편 케이 보고관은 새 보고서에 일본 당국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담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케이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일본 검찰이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반대 운동 등을 해 온 야마시로 히로지오키나와 평화센터의장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돌이라는 새』 출판기념회

- 일 시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5·18교육관 강당
- 후 원 | (사)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시꽃피다
- 구매 문의 | 시산맥사 ☎ 02-764-8722

시집 『돌이라는 새』는 조선의 시인의 새로운 시 세계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의 시를 읽는 일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이자 한국시의 숨은 보석을 만나는 행운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중략) 우리네 삶은 대개 어떤 제한에서 자유롭기 힘든 물음표 같은 속성을 갖는다. 조선의 시인은 이를 뛰어넘어 자유를 향해 열려있는 느낌표로서의 삶을 꿈꾼다.

- 권온(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

시인 조선의 • 김만중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 시집 『당신,반칙이야』, 『어쩌면쓰라린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모든 빛을 소환하다』 출간